

한국해양연구소(www.kordi.re.kr)



양자료, 문헌자료, 교육자료, 해양과학자료 등 다양한 해양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해양자료 서비스는 해양데이터베이스와 인공위성 해표면 온도 등의 고급정보를 제공한다. 해양과학 정보는 어린이들에게 유용한 코너. 해양오염과 지구환경, 해양생물의 세계 등을 생생한 사진자료와 함께 안내해 준다. 특히 해양미생물, 식물성 및 동물성 플랑크톤, 극지해양생물 등의 자료는 쉽게 보기 힘든 귀한 자료이다.

바다는 인류가 자원의 보고로 꼽는 곳이다. 어족부터 각종 광물과 석유까지 인류에게 유용한 자원이 대부분 바다에 숨어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아직도 신비한 곳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만큼 알려진 부분이 적고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기 때문.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이 곳은 이러한 바다의 비밀을 알려준다. 한국해양연구소는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연구기관으로 출발해 1988년 남극 킹조지섬에 세종과학기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995년 종합해양연구선인 1천4백22톤급 온누리호를 취항시켰다. 그런만큼 남극 및 해양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다.

이 곳의 활동상황은 연구활동 코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코너에는 해양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 물리, 해양 생물, 해양 화학, 해양 지질, 극지 및 연안항만, 심해저 자원, 해양 생물자원 등 다양한 연구분야에 대한 설명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다. 각 분야를 선택해보면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귀중한 사진자료도 볼 수 있어 여러 가지로 교육에 도움이 된다.

해양자료코너에서는 연구소에서 개발하거나 발굴한 해

재미있는 코너는 한국해양 종합해양환경도. 한반도 주변의 해양을 황해, 남해, 동해, 대한해협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지도와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영문만 제공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함께 발간물 코너를 마련해 연구소 논문자료를 비롯 각종 간행물과 홍보물을 게재해 놓았다. 또 해양과학 총서시리즈와 연구원들의 저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연간 두번 발행하는 오션리서치의 지난 과월호 목차도 이 곳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극지연구센터의 이중익박사가 연간 두번 발행하는 한국 극지연구 총 10호의 목차도 게재돼 있다.

이밖에 해양환경영향평가개론, 지구환경변화사와 해저 자원, 해양과 인간, 자연과 사람들, 한중해양법 비교, 야! 가자 남극으로, 우리의 연안습지 갯벌, 백화현상의 실체와 극복, 해양생물 등 재미있는 읽을 거리부터 전문 연구서적, 실용서적까지 해양관련 서적들이 저서코너에 총망라돼 있다. 목차와 더불어 책 표지, 간단한 설명까지 곁들여 있어 책을 고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7

崔然軫(한국일보 경제부 기자)